

## 四象醫學 生理 病理現象에 나타난 陰陽觀

韓其煥\*·高炳熙\*·宋一炳\*

### 서론

韓國의 醫學은 古代 中國으로부터 유입된 中國 醫學의 바탕 위에서 전래되어 왔으나, 단순히 中國 醫學을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우리에게 맞는 醫學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醫學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鄉藥集成方』·『醫方類聚』·『東醫寶鑑』등을 통해 韓國의 傳統醫學을 집대성하였고, 이후 1894년 東武 李濟馬에 의해 四象哲學을 바탕으로 한 四象醫學이 탄생하였다.<sup>1)</sup>

기존의 內經을 중심으로 한 韓醫學에서는 宇宙自然現象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自然을 大宇宙, 人間을 小宇宙라는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天稟을 일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체로서의 인간보다는 자연현상과 환경에 순응하고 조화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연중심적 인식론을 취하였으며, 生理的·病理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陰陽五行論의 相生相剋의 순

환관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李濟馬는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자율적인 조절능력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 인식론을 취하고 있으며, 인간을 그의 性情에 따른 天稟의인 四體質로 나누고, 生理的·病理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陰陽論의 특징에 바탕을 둔 四物類의 要約精神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論의 특징에 근거한 四物類의 要約精神을 四象人 生理的 및 病理的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먼저 四象醫學의 四象類型的 要約精神 및 그 속에 나타난 陰陽論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러한 요약정신에 근거한 각 四象人의 生理的·病理的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편 :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49쪽~56쪽, 1997.

### 1. 四象類型的 要約精神에 나타난 陰陽觀

이제마는 그의 本體論的 입장을 太極과 兩儀와 四象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우주만물을 一元的 本體(太極)로 파악할 때 그것을 心이라고 했고, 二元的 本體(兩儀)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心身이라 했고, 四元的 本體(四象)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事心身物이라 했다. 따라서 東武에게 있어서 四象은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實體的 개념으로, 八卦는 이러한 四象의 兩面象에 불과하다 하여, 四象을 가장 주요한 本質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주만물의 모든 현상을 四象(事心身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四象의 분화과정을 『四象醫學本草卷』에서는 “天生萬物 有物有則”이라 하여 太極과 兩儀를 ‘則’에 해당되고, 四象은 ‘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四象의 實體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sup>4)</sup>

즉, 心·心身은 則·機能·陽的인 것이고 四象(事心身物)은 物 構造 陰的인 것이다. 이러한 事心身物은 四元構造이나 그 개념을 다시 大小遠近이나 一萬의 정신으로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보면 事·心은 無形으로 形而上學的이라면 身·物은 유형으로 形而下學的으로 볼 수 있으며 心·身은 主內하며 生物 즉 인간으로 볼 수 있고 事·物은 主外하며 非生物 즉 環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 『格致彙』의 四象

	太極	兩儀	四象	八卦
『格致彙』	心	心身	事心身物	事之終始 心之緩急 身之先後 物之本末
	則(陽·機能)		物(陰·構造)	四象의 兩面性

### 2. 四象인 生理現象에 나타난 陰陽觀

이와 같은 四象類型的 요약정신은 『東醫壽世保元』을 통한 李濟馬의 醫學觀의 바탕이 되었으며, 四象人의 生理·病理現狀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四象臟腑論』은 四象哲學(事心身物)을 바탕으로 生理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인체의 구조 및 현상의 內在關係를 陰陽氣의 升降緩速에 따라 설명한다.

#### (1) 四氣의 陰陽의 特性

인간은 先天的으로 네 가지 유형의 臟理를 타고 나는데 이러한 先天的 臟腑大小의 결정 인자를 性情으로 규정하였으며, 喜怒哀樂의 네 가지 性·情·氣에 의해 구조 및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四氣(哀怒喜樂之氣)의 성질은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니 哀怒之氣는 陽으로서 上昇하며,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하니 喜樂之氣는 陰으로 下降하게 된다. 喜怒之氣는 順動하면 生理的 상승을 하며 喜樂之氣가 順動하면 生理的 下降을 한다.<sup>6)</sup>

2. 『格致彙·反省箴』: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3. 『格致彙·反省箴』: “太極心也……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59쪽~62쪽, 1997.

5.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의 成立背景과 四象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韓國의 陰陽觀, 1997.

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喜怒之氣 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이러한 四氣의 특징(性情의 특징)에 의해 四象人의 先天의 臟理가 정해지니,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하면 氣가 肺로 流注하여 肺가 더욱 盛해지고 怒情이 促急하면 氣가 肝에 부딪쳐 肝이 더욱 削하여 肺大肝小의 臟理를 형성한다.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하여 脾가 더욱 盛하고 哀情이 促急하여 腎이 더욱 削하여 脾大腎小의 臟理를 형성한다. 太陰人과 少陰人의 臟理 역시 이와 같은 이치로 각각 肝大肺小, 腎大脾小의 臟理를 형성한다<sup>7)</sup>. 이렇게 性情에 의해 형성된 臟의 氣運(生理的 특징) 역시 陰陽升降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肺의 氣運은 곧고 펴는, 脾의 氣運은 굽으며서 싸는, 肝의 氣運은 너그럽고 완만한, 腎의 氣運은 온화하면서 쌓이는 生理的 특징을 지니게 된다<sup>8)</sup>

## (2) 陰陽의 上下 升降을 통한 水穀四氣의 形成 및 代謝過程

水穀之氣는 四府에서 陰陽의 편차에 따라 上下升

降의 원리로 淸濁分利된 후 水穀四氣(溫·熱·冷·寒氣)가 생성된다. 즉 胃에서 熱氣가 생산되고 小腸에서 冷氣가 생산된 후 熱氣의 淸者는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를 형성하고 冷氣의 質重者는 大腸으로 下降하여 寒氣를 형성하게 된다<sup>9)</sup>.

이렇게 형성된 水穀之四氣는 陰陽의 편차에 의해 上·上中·下中·下의 네 단계로 분류되어 四府(胃脘·胃·小腸·大腸)에서 시작하여 인체 전면부(舌下·頤間兩乳·臍·前陰毛際;身)에 前四海(津·膏·油·液海)를 형성하고, 각각의 前四海의 淸氣는 耳·目·鼻·口(事)에서 나와 神·氣·血·精이 되어 인체 후면부(頭腦·背·腰脊·膀胱;物)에 後四海(髓·膜·血·精海)를 형성한다. 이중 淸汁은 四臟(肺·脾·肝·腎;心)으로 돌아가고, 濁涕는 皮·筋·肉·骨을 滋養한다. 이러한 水穀之氣의 代謝過程은 上下, 表裏, 前後의 陰陽의 편차에 의해 배속되어 四象類物의 정신을 형성한다. (水穀의 溫·熱·冷·寒氣는 각각 肺黨·脾黨·肝黨·腎黨을 현성한다.)<sup>10)</sup>

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 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 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肺氣 直而伸 脾氣 栗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 溫而縮”.
9. 『東醫壽世保元 臟腑論』“水穀 自胃脘 而入于胃 自胃 而入于小腸 自小腸 而入于大腸 自大腸 而出于肛門者 水穀之度數 停畜於胃 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 而平淡爲冷氣 熱氣之淸者 上升於胃脘 而爲溫氣 冷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 而爲寒氣”
10. 『東醫壽世保元 臟腑論』：“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 而爲月貳海 月貳海者 神之所舍也. 月貳海之月貳汁淸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故 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 間兩乳 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淸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 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淸者 內歸于脾 濁滓 外歸于筋故 胃與兩乳目背筋 皆脾之黨也. 水穀冷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 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淸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 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淸者 內歸于肝 濁滓 外歸于肉故 小腸與臍鼻腰脊肉 皆

### 3. 四象인 病理現象에 나타난 陰陽觀

#### (1) 四氣와 臟腑의 病理·病機

四氣는 正常的인 人體의 조건하에서는 順動하여 전신에 골고루 작용하여 生理的 조건을 이루나, 만일 어떤 원인에 의하여 逆動하면 氣의 균형이 상실되어 病理的 상황을 맞게 된다. 즉 哀怒之氣는 陽에 속하므로 상승하는 데, 만약 上昇之氣가 過多하여 逆動하면 上部에 竝合하여 下焦가 傷하게 된다. 한편 喜樂之氣는 陰에 속하므로 下降하는 데, 만약 下降之氣가 過多하여 逆動하면 下部에 竝合하여 上焦가 傷하게 된다.<sup>11)</sup>

逆動之氣는 “頻起怒…… 腰脇迫蕩不定則 肝氣不傷乎”라 하듯이 각각의 氣는 작용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작용부위에 따라 해당부위에 위치하는 臟氣가 傷하게 된다.<sup>12)</sup>

또한 哀怒之氣는 相成하고 喜樂之氣는 相資하므로 四臟之氣 중 肺와 脾는 相成하고 肝과 腎은 相資한다. 그러므로 順動하는 氣는 相成, 相資하여 氣가 注하게 되어 해당 장기가 盛해지는 반면, 逆

動하는 促急한 氣는 極하게 됨으로써 脾와 肝, 肺와 腎이 서로 짝을 이루어 激한게 된다<sup>13)</sup>. 이러한 四氣는 上下의 升降뿐만 아니라 表裏에도 작용하니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裡氣를 傷한다<sup>14)</sup>.

#### (2) 少陰人 病證의 陰陽觀

少陰人 病證은 腎受熱表寒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나누어지는 병증이다. 少陰人의 병증은 水穀之氣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病證이 대부분으로, 질병의 輕重 險危의 여부 및 進退여부는 그의 保命之主인 溫暖之氣의 盛衰와 관련이 있다. 少陰人의 病理 및 病機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陰陽的 편차의 방법을 사용하나, 內經醫學의 陰陽盛衰와는 다르니 陰陽의 절대적 평형상태가 아니라 天稟的 陰陽의 불균형상태에서 그의 生理 病理的 현상을 유지하는 자율적 능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원동력은 각 체질의 保命之主인 것이다.

즉, 少陰人은 천품적으로 脾小하여 脾陽이 부족하고, 腎大하여 腎陰이 過度한 하나 그의 원동력인

肝之黨也.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 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 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 外歸于骨故 大腸與前陰口 膀胱骨 皆腎之黨也.

1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怒之氣 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
1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 闊狹不定 則脾 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 則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 則腎 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 則背脊 暴揚而暴抑也 背脊者 肺之所住着處也 背脊 抑揚不定 則 肺氣不傷乎.”
1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修樂無厭”
14.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病證論』: “… 太陽人 膈病 太重於解 病而 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 太陽人 哀心深者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裡氣.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 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 頁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溫暖之氣(保命之主)로 생리적 특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생리적 특징이 있으므로 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불균형상태(陽虛)와 保命之主(溫暖之氣)를 염두해야한다.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은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나누어지며, 鬱狂證은 脾局의 陽氣가 寒邪에 억눌린 바가 되어서 腎局의 陽氣가 그 寒邪의 저항을 받아 直升하여 脾局에 연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세<sup>15)</sup>로 保命之主인 溫暖之氣(陽氣)의 盛衰에 따라 鬱狂 初中 末證으로 나누어지니 이의 病勢는 末症에 도달할수록 熱相(陽症)을 나타낸다<sup>16)</sup>. 그러나 이 熱相은 溫暖之氣의 손실에 의한 虛熱의 증상으로 實熱의 증상은 아닌 것이다. 亡陽證 역시 鬱狂證과 같은 病機에 의해 발생하나 發汗이라는 陽氣(溫暖之氣)의 衰함이 심한 증상으로, 鬱狂證이 順症이라면 亡陽證은 逆症인 것이다.

少陰人 胃受寒 裏寒病證은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少陰人이 胃氣가 虛弱한 상태에서 寒邪를 받아 發生한다. 太陰證은 胃中の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이기고서 내려가며 발생하는 順症이며, 少陰證은 大腸 寒氣가 胃中の 溫氣를 이기고 위로 올라가며 생기는 逆症이다<sup>17)</sup>.

少陰人 病證의 治法은 그의 생리적 특징이 陽虛(保命之主는 陽暖之氣)이므로 表病(陽症)은 益氣升陽하고 裏病(陰證)은 陽虛와 함께 陰實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溫胃降陰, 健脾降陰의 治法을 사용한다.

이와같이 少陰人 병증에 있어서의 陰陽觀은 表裏病證, 順逆病證, 病證의 輕重, 治法등에 나타난다. 즉 表病(鬱狂 亡陽)은 陽症이고 裏病(太陰 少陰)은 陰證이며<sup>18)</sup>, 順症은 陽症이고 逆症은 陰證이며, 輕險證은 陽證이고 重 危證은 陰證이로 볼수 있다. 한편, 治法에 있어서는 保命之主인 溫暖之氣(陽氣)를 補한다는 대전제하에 表病의 경우는 주로 陽氣(正氣)의 上昇을, 裏病의 경우는 陽氣의 上昇과 함께 陰氣(邪氣)의 下降을 도모한다.

##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四象醫學은 四象類型에 의한 요약정신의 의학으로 心 心身은 則 機能 陽의인 것이고 四象(事 心 身物)은 物 構造 陰의인 것이다.
2. 四氣는 哀怒喜樂之氣로 哀怒之氣는 陽氣로 上昇하고 喜樂之氣는 陰氣로 下降하는 특징이 있고, 四象人은 天稟的 性情의 차이에 의해 臟理가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각각의 臟理 역시 陰陽升降의 특징을 지닌다.
3. 水穀之氣는 四府에 의해 陰陽的 편차(淸濁)에 따라 水穀之四氣(溫 熱 冷 寒氣)를 형성한 후 上下, 表裏, 前後의 陰陽的 편차에 의해 배속된 각 인체에 대사한다.

15.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 “下焦血證 卽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16. 동편: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 直視者 鬱狂之末證也.”

17.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 裏寒病論』: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 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18.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 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

4. 哀怒喜樂의 4氣는 逆動하면 哀怒之氣는 陽氣  
이므로 上部에 竝合되어 下部를 傷하게 되고, 喜樂  
之氣는 陰氣이므로 下部에 竝合되어 上部를 傷하게  
된다. 四氣는 또한 表裏를 傷하게 하므로 性은 表  
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한다.

5. 少陰人 病증에 있어서의 陰陽觀은 表病(鬱狂  
亡陽)은 陽症이고 裏病(太陰 少陰)은 陰證이며, 順  
症은 陽症이고 逆症은 陰證이며, 輕 險症은 陽症이  
고 重 危症은 陰證으로 볼수 있다. 治法에 있어서  
는 保命之主인 溫暖之氣(陽氣)를 補한다는 대전제  
하에 表病의 경우는 주로 陽氣(正氣)의 上昇을, 裏  
病의 경우는 陽氣의 上昇과 함께 陰氣(邪氣)의 下  
降을 도모한다.

## 참 고 문 헌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사상의학,  
집문당, 1997.
2. 김달래 : 四象醫學 病證論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  
회지 Vol. 1, No. 1. 1989.
3. 조황성 :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89.
4. 송일병 :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사상의학의 성  
립배경과 사상의학에 나타난 陰陽觀), 韓國의  
陰陽觀, 1997.